

2014년 1학기

---

#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정기답사

- 포항, 경주 -

---

일시 : 2014년 6월 24일(화)

장소 : 포항, 경주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2014년 1학기

#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정기답사

- 포항, 경주 답사 -

일시 : 2014년 6월 24일(화)

장소 : 포항, 경주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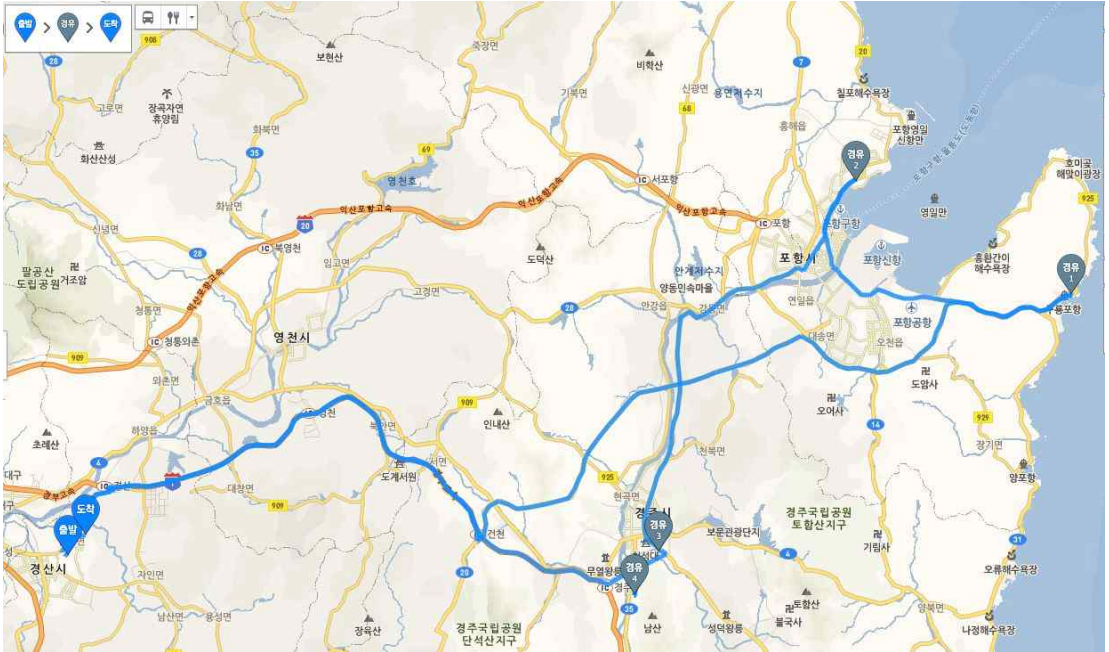
답사 일정 .....	1
답사 코스(지도) .....	2
1. 포항 근대역사문화거리 .....	3
2. 포항시립미술관 .....	7
1) 안녕, 재료들 .....	8
2) 디아스포라의 시선(이우환 외) .....	9
3) 초현관 상설전 .....	11
3. 국립경주박물관 .....	13
1) '치유와 염원의 상징, 약사불의 세계 전' .....	13
4. 남산 삼릉 일대 불상 .....	17
1) 배리 삼존석불입상 .....	20
2) 냉곡 석조여래좌상 .....	25
3)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	27
4) 삼릉계곡 마애선각육존불상 .....	29
5)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	32
6) 삼릉계곡 석불좌상 .....	34
5. 부록 (불상의 명칭, 수인과 불상, 가사의 형태, 보살의 명칭) .....	36

## 답사 일정

6월 24일(화)

시간	도착지
8:10	영남대학교 미술관 앞
8:10~10:00 (1시간 50분)	이동
10:00~10:50 (50분)	구룡포항 근대문화역사거리
11:00~11:50 (50분)	이동
12:00~12:50 (50분)	포항시립미술관
13:00~13:50 (50분)	※ 점심식사: 환여횃집(054-242-8899)
14:00~15:00 (1시간)	이동
15:00~15:50 (50분)	국립경주박물관
16:00~16:15 (15분)	이동
16:15~16:35 (20분)	경주 남산 삼릉 배리 삼존석불입상
16:35~16:55 (20분)	경주 남산 삼릉 삼릉골 마애관음보살상
16:55~17:15 (20분)	경주 남산 삼릉 삼릉골 마애선각육존불상
17:15~17:35 (20분)	경주 남산 삼릉 삼릉골 선각여래좌상
17:35~17:55 (20분)	경주 남산 삼릉 삼릉골 석불좌상
17:55~18:25 (30분)	이동
18:30~20:00 (90분)	※ 저녁식사: 진미식당(054-746-5656)
20:00~21:00 (60분)	이동
21:00	영남대 도착

## 답사 코스



### 이동경로

**학교** : AM 08:30 출발



**포항** : AM 10:00 도착 - 포항 근대문화역사거리

PM 12:00 도착 - 포항시립미술관



**경주** : PM 15:00 도착 - 국립경주박물관

PM: 16:15 도착 - 남산 상릉 일대 (불상) 답사 (약 2시간 소요)

PM: 18:30 부터 저녁식사 - 남산 상릉 근처 (약 1시간 30분 식사)



**학교** : 약 PM 21:00 도착

## 1. 포항근대문화역사거리

정리: 석사과정 2학기 이지영



포항 근대문화역사거리 일주문

포항시는 2010년 3월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다.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는 현재 구룡포항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며 본래 ‘일본인 가옥거리’로 불리던 곳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어업, 선박업, 통조림 가공공장 등을 통한 경제활동을 하며 집단 거주하였다. 포항시는 이곳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여 지금은 관광 장소로서 손색없는 곳이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17만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포항의 근대문화역사거리는 일제 강점기라는 치욕스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관람객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역사의 뼈아픈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여 보여주는 것이 관람객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포항 근대문화역사거리는 포항시의 “과거의 아픈 역사도 보존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의 장소로 남겨야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일제시기의 포항은 철도, 항만,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상품유통의 중심지가 된 곳으로 일본인들은 일찌감치 포항의 장점을 파악하여 1894년 이후 포항으로 적극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그들은 포항에 정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이며 상업과 상품유통에 나서 포항의 상권을 장악하였다. 그 후 1910년 8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포항에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다. 1915년 포항에 일본인 군수가 취임하였는데 당시 포항은 영일군 포항면이었다.



포항 근대문화역사 거리 장면

포항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은 영일군 청을포항으로 옮기기 위하여 <포항유치기성회>를 조직하여 결국에는 군청을 포항으로 옮겼다. 또한 경찰서·세무서·학교·역·우편국·지방법원출장소·세관출장소 등 모든 관공서를 포항면에 이전하거나 신설했

다. 그 이유는 포항 거주 일본인을 보호하고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일본인 중심의 식민통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포항의 일본인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시된 것처럼 일본인들의 터전이 만들어진 것이다.

포항 근대문화역사거리 내에는 100여 년 전의 일본식 건물은 물론이며 구룡포 근대역사관과 충혼탑, 충혼각, 용왕당 등이 있으며, 아울러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과 느린 우체통 등을 조성하여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구룡포 근대역사관은 당시 생활모습 뿐만 아니라 포항의 항일투쟁 모습도 전시돼 있어 교육의 장소

1) 1892년부터 포항지역을 조사하여 해산물과 곡물 등 물산이 풍부한 것을 보고 이주하려 했다.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충혼탑과 충혼각, 용왕당은 일본 가옥 뒷산에 위치하는데 일본인들이 손수 만든 공원 내에 있다. 그곳에는 도가와 야스브로(十河彌三郎) 송덕비도 있는데, 도가와 야스브로는 당시 구룡포 방파 제죽조와 도로 개설 등에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일본인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웠다.<sup>2)</sup>



구룡포 근대역사관

구룡포 근대역사관은 1920년대 가가와현에서 온 하시모토 젠기치가 살림집으로 지은 2층 일본식 목조가옥이다. 당시 건물을 짓기 위해 일본에서 직접 건축자재를 운반하여 건립하였다고 한

다. 하시모토 일가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오랫동안 한국인이 거주하였으나 2010년 포항시에서 매입하여 복원 공사를 해서 구룡포 근대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내부에는 항일운동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다. 충혼각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60년에 건립한 건축물이다. 내부에는 포항(당시 영일군) 지역 출신 235인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용왕당은 구룡포 어민들의 풍어와 안전조업을 기원하기 위한 장소이다. 이 곳은 ‘사해용왕’<sup>3)</sup>을 모시며 1956년에 건립되고 2008년에 철거 신축을 거쳤다.

2) 해방 후 구룡포 주민들이 시멘트로 덧칠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3) 중국에서 사방의 바다를 관리한다고 알려진 네 명의 용왕. 원래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보통 때는 신장이 4천 미터나 되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동해용왕인 오광(敖廣), 남해용왕인 오윤(敖潤), 서해용왕인 오흠(敖欽), 북해용왕인 오순(敖順)이 있다.



용왕당

### 참고 논문

최성원, 「일제강점기 포항의 도시화 과정」, 『경주사학』 제38집, 동국대학교사학회, 2013, pp.111-144.

### 참고 사이트

포항시청 [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

경북매일 [www.kbm-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751](http://www.kbm-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751)

CNB뉴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08835>

### 사진 출처

그림1 [www.kbm-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751](http://www.kbm-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751)

그림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2&aid=0000433212

그림3-5 <http://allsteel.blog.me/10189666357>

## 2. 포항시립미술관(Pohang Museum of Steel Art)

정리: 석사과정 2학기 남수진

### 1) 기관소개



포항시립미술관 전경

포항시립미술관(이하 POMA)은 포항 문화의 근간인 Steel을 테마로 Steel Art 컬렉션과 전시기획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민이 감동하는, 작지만 차별화된, 세계적인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4개의 전시실과 초현 장두건관, 세미나실, 뮤지엄샵, 카페테리아,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2개의 수장고를 갖추고 있으며 환호 해맞이공원이 가진 선 형의 흐름과 부지의 경사를 적절히 이용하여 미술관 건축이 수행해야 할 목적과 공원의 자연성을 최대한 조화시키고자 했다. 미술관의 옥상까지 시민에게 개방되어, 무한히 연장되는 공원의 산책로로 자연

속, 공원 속의 미술관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1층은 자연스럽고 인지성이 좋은 전시관 관람동선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 환호 해맞이공원 산책로 가까이 아트 스텝, 카페테리아, 화장실을 배치하여 미술관의 공공성을 확보하였고, 미술관의 중앙홀과 상설전시실이 주요 기능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중앙홀 상부의 오픈 플로어, 천창, 창, 매달린 계단 등은 극적인 건축공간의 감동을 부여하고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2층의 회랑형 복도는 중앙홀의 높다란 공간 속에서 보는 각도와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3차원의 전시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건축적 의도’이다. 홀과는 대조적으로 백색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1층 전시실은 높은 천장과 중층의 내부회랑을 통해 전시의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자연채광을 도입시켰다. 2층의 기획전시실과 특별전시실도 6~10m에 이르는 변화 있는 천장과 직간접 조명 등으로 다양한 전시기법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계획되었다. 지하층의 교육공간은 미술관 내부와 외부 공원에서도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 편의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했다.

POMA는 2005년 8월 전국적으로 개최된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기본 안이 선정되었고, 약 6개월에 걸쳐 수차례의 자문회의와 협의를 통해 설계가 완료되었다. 포항시립미술관의 전체 면적은 약 5천200㎡이며 2006년 11월 착공, 약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9년 12월 말 개관했다.

## 2) 전시개요

초현관 상설전 | 2009. 12. 22 ~ 2014. 12. 31, 본관 2층 초현 장두건관



장두건, 산의 인상, 캔버스에 유채, 45.5X53cm, 1998

초현 장두건 화백(1918~)은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의 전개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주요한 미술단체를 결성하고 주요 미술인들과 함께 활동하는 등 오랜 동안 화단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POMA는 포항 지역 출신으로 근현대 한국미술계의 주요 작가였던 장두건 화백의 작품 60여점을 전시하고 그의 예술적 성취와 조형 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를 갖고

자 한다. 장두건 화백은 1937년 일본으로 건너가 미술에 입문한다. 해방 후 서울에서 교편을 잡았던 선생은 전쟁의 혼란이 잦아들 무렵이던 1957년 프랑스로 간

다. 그는 파리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와 에콜 데 보자르에서 수학하였고 유학 중 프랑스 관전(官展)인 ‘르 살롱’전에 출품하여 특선을 하였다. 1960년 귀국한 이후 수도여자사범대학, 성신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등에서 미술교육자로서, 그리고 독창적인 회화세계를 지닌 화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사실적인 화풍에 기초하면서도 섬세한 표현과 독특한 시각을 통해 독창적인 회화세계를 펼쳐왔다. 여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은 보인 포항으로서 이러한 장두건 화백의 존재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POMA에서는 앞으로도 ‘조현 장두건관’을 통해 장두건 화백의 주요작품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전시할 계획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에 관한 미술관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장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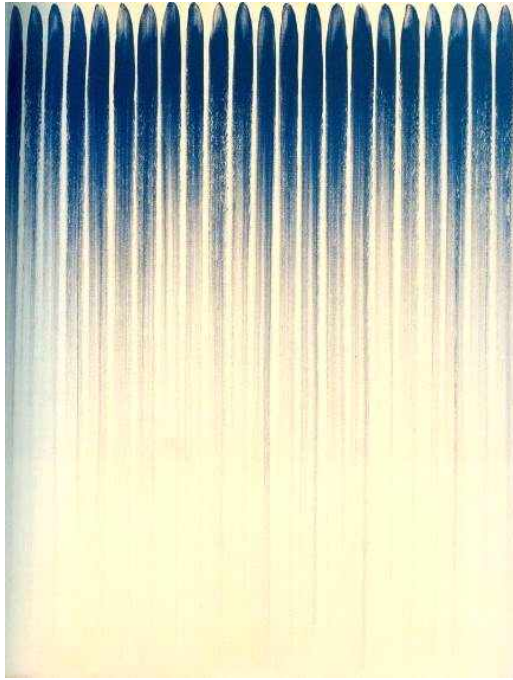
## 디아스포라의 시선 I 2014. 4. 3 ~ 6. 29, 1, 3, 4 전시실

POMA는 공립미술관의 소장품 교류 활성화와 미술문화를 통한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전국 시·도립 미술관 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되는 ‘하정웅 컬렉션 특선전 기도의 미술’ 전시를 열고있다. 서울, 광주,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이 전시를 선보이는 POMA는 <디아스포라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재일 한국인으로서의 하정웅(1939~) 선생의 기증활동을 조명해본다. 전시는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은 ‘후원자로서의 하정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작가 이우환(1936~)의 <선으로부터(From Line)>를 비롯한 대표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하정웅과 이우환의 인연은 1980년 일본의 미술잡지 『미즈에(みづゑ)』에 실린 이우환 특집 기사를 보고 한 민족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껴 일본 미술관과 갤러리에 보내기 위해 잡지 재고 500부를 모두 사들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이우환의 파리 전시 경비를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우환의 작품수집이 시작되었다. 이우환의 단색화의 핵심은 그리는 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함축성, 암시성으로 외부의 조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우환은 스스로 ‘영원한 떠돌이’, ‘중간자’라고 말했듯, 그의 작품에는 일본 내 타자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신념 그리고 그 양자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려 한 흔적이 담겨 있다.

이우환의 작품은 인간이나 사물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 내 타



자(재일 한국인)로서 하정웅의 정체성과의 관련되어 있다. 즉 “자아를 가능한 줄이고” 외부 혹은 타자와의 끊임없는 만남을 시도하는 이우환의 작품은 사회적 소



이우환, 선으로부터, 캔버스에 아교와 안료, 145x112.6cm, 1980

수자들에게 대한 관심과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하정웅의 인생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섹션에는 서양화가 전화황(1909~1996)의 회화 작품을 전시하고있다. 전화황의 작품은 일본 내에서 감당해야 했던 한국인으로서의 고뇌와 기도의 상념을 깊은 신앙적 작업으로 구현시키고 있다. 재일 한국인으로서의 역경과 고난을 겪은 하정웅은 이러한 기도의 정감이 배여 있는 전화황의 작품을 통해 자신을 지탱하게 해주었던 어머니의 존재와 같은 다정함을 느꼈다고 한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역사적 자료의 가치에 대한 하정웅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월북예술가라는 이념적인 이유로 정당한 평가와 조명을 받지 못했던 전설적인 무희, 최승희(1911~1967)의 사진

들이 그것이다. 하정웅은 최승희의 사진 외에도 공연포스터, 리플릿, 관련 서적과 비디오 영상물 등을 대거 수집함으로써 역사의 뒤편에 묻혀 있던 최승희의 존재를 재조명하는데 이바지했다.

이번 <디아스포라의 시선>에서는 10대부터 40대 최승희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과 공연 장면, 연습 장면 등 이념적인 것과 상관없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 이념적 대립 구도의 희생이 된 예술가로서의 한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정웅의 미술작품 컬렉션을 통한 매세나 활동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컬렉션의 목적이 기업 혹은 개인의 이윤을 위한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미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조국과 약자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정웅은 50년간 수집한 1만여 점의 작품을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미술관과 박물관

에 기증해왔다.

## 안녕 재료들 I 2014. 4. 3 ~ 6. 29, 2 층 2 전시실

이 전시는 열명의 작가들 - 김지민, 박현진, 서할, 서동익, 유영운, 이승오, 이승현, 정찬부, 최성임, 최찬미 -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의 다양한 재료와 표현 기법을 탐색할 수 있으며, 오브제(object) 개념의 등장 이후 넓어진 현대미술의 스펙트럼(spectrum)을 볼 수 있는 전시이다.

작가들의 일상에 대한 관심과 사색을 통해 발견된 사물들이 예술가의 창조성을 거쳐 새로운 의미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미술의 확장된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작가에게 사물은 기능적인 요소를 넘어서 사유하는 대상이 되며, 새로운 미술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가 된다. 그들은 자신의 사유의 세계를 담아 재료의 조형성을 탐구하고,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순히 일상의 사물

을 넘어 사물이 갖는 사회적으로 내포한 뜻이나 그 이면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은 재료의 물성을 넘어 새로운 미적 가치들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되고 있다. 『안녕 재료들 Hello Materials』 전시는 작가들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조형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발견, 재현 혹은 창조의 행위를 통한 일상의 사물들이 예술 작품으로 전이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작품 모두 외형적으로는 심미적이거나 위트 있는 조형성을 갖는 작품들로 관람객



최찬미, 드레스\_CMDR10102711, 생선가시,  
85x97x147cm, 2010

모두 즐거운 시각적 유희를 느끼게 하며, 재료를 가공하고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작품들에서 경이로움마저 들게 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포항시립미술관 <http://www.poma.kr/>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

: 김홍근, 대구경북 근현대 名 건축기행 4 -포항시립미술관(POMA), 2014.01.18

네이버 인물정보

#### 사진출처

포항시립미술관 <http://www.poma.kr/>



### 3.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

정리: 석사과정 3학기 박선희

치유와 염원, 약사부처의 세계 2014. 4. 19 ~ 7. 12, 신라미술관 1층 로비

#### ■ 약사 신앙과 설화



석조약사불좌상

삼국시대의 불교는 수용과 발전기를 거치면서 불교 신앙은 석가 신앙과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 불교사상이 정립되면서 신앙이 보편화되자 이전의 신앙에 더하여 관음신앙 그리고 지장신앙 등 다양한 신앙이 널리 성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특정 총파에 특정 신앙이 결부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각종 신앙이 중복 실천된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약사 신앙은 아미타신앙과 관음신앙을 더불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신앙의 하나였다. 아미타신앙이 기본적으로 내세신앙이며 관음신앙이 현세 기복적 신앙인데 비해 약사신앙은 현세적 성격과 정토 신앙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약사신앙의 일차적 성격은治病신앙과 관련된 現世祝福적 의미이다. 그러한 의미의 내용은 불구자나 질병자의 치료나 형벌이나 굶주림 또는 빈곤 등 현실 생활에서의 구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인적인 橫死나 외세의 침략, 내란, 천재지변 등 국가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개인의 소망과 생명을 연장 시켜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약사신앙의 초기에는 치병을 위해 『관정경』의 일부 등 밀교계통

경전을 사용하여 약사신앙에 밀교적 성격을 연계시켰다.

약사신앙에 관련된 내용은 『삼국유사』에 몇 가지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에는 선덕왕이 병이 들어 낫지 않자 홍륜사 승려 법척이 왕명으로 병을 치료하려 했으나 역시 효과가 없었다. 그때 덕행으로 이름났던 密本을 왕명으로 궁궐에 들어오게 하여 치료하도록 하였다. 밀본이 침궐 바깥에서 『약사경』 읽기를 마치자 왕의 병이 곧 나았다. 또 密本은 후에 재상이 된 김양도의 병을 치료 해 주었다. 김양도는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무당을 청해 제사를 지냈으나 효과가 없었다. 다시 법류사의 승려를 청해 경전을 읽게 하였으나 오히려 귀신에게 쫓겨나고 말았다. 그래서 밀본을 초청했더니 밀본이 경을 열기도 전에 병이 나았다. 이러한 치병 설화는 신라의 초기 밀교 승려들이 기반 확보를 위해 병을 치료하는 활동에 힘을 기울인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이러한 내용으로 약사신앙이 신라 사회에 기반을 넓혀 가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또 신라 약사신앙의 유행을 대변해 주는 것은 수많은 약사불상의 조성 사례이다. 신라의 약사상은 寶珠를 지물로 들어 구별되는데 통일 이전과 중대 그리고 하대에 각각 10기 이상의 조성 예를 보인다. 그중에는 사방불의 동방불로 조성되거나 불탑의 탑신에 조각된 예도 있다. 신라 약사불상은 立像과 坐像으로 표현되었는데 좌상은 오른손은 降魔觸地印이나 說法印을 하고 왼손에 藥器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法衣는 偏袒右肩이나 通肩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삼국시대와 중대에는 보주형 지물이 많았으나 하대로 갈수록 실재 뚜껑이 있는 합이나 뚜껑이 없는 단지 같은 형태의 약기를 든 경우도 많다.

이후 신라의 약사신앙은 고려와 조선에 이어지며 한국불교의 주요 신앙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조선시대에 일반화된 三世佛신앙에서 약사여래는 현세를 주재하는 중앙 석가모니불과 서 방 극락정토의 아미타불과 나란히 동방 약사정토의 주재불로서 널리 신앙되기에 이르렀다.

## ■ 경주박물관의 약사부처

통일신라에서는 8세기부터 약사신앙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수의 약사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전하는 통일신라의 약사불상은 주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에 제작된 것들입니다. 소형의 금동불은 이동하기 쉬워서 불상의 도상과 양식



금동약사불입상

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큰 석불 조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불상 표현에 자율성과 변화의 폭이 커지면서 다양한 모습의 불상이 등장하였습니다. 약사불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주박물관에는 이번 전시에 출품된 상들 이외에도 약사불상들이 여럿 전시되고 있

습니다.

금동불로는 백률사 약사불입상 석불로는 남산 용장굴 출토 약사불좌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주시 북쪽 소금강산의 백률사에 있던 것을 1930년에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 놓은 것이며, 전체 높이 177cm의 등신대 불상으로 대좌와 광배는 잃어버렸고 옛 사진에는 약합을 들고 있는 손이 끼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모든 중생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약사불을 형상화한 것이다. 머리는 신체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며, 둥근 얼굴·긴 눈썹·가는 눈·오뚱한 코·작은 입 등에서는 우아한 인상을 풍기고 있지만, 8세기 중엽의 이상적인 부처의 얼굴에 비해 긴장과 탄력이 줄어든 모습이다. 큰 체구에 비해 어깨는 약간 빈약하게 처리된 느낌이지만 어깨의 굴곡은 신체에 밀착된 옷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양 어깨를 감싸고 입은 옷은 두 팔에 걸쳐 흘러내리고 있으며 앞가슴에는 치마의 매듭이 보인다. 앞면에는 U자형의 주름을 연속적인 선으로 그리고 있는데 조금은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신체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중후해지며 옷자락들도 무거워 보이는데, 이것은 불쑥 나온 아랫배와 뒤로 젖혀진 상체와 더불어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손은 없어졌으나 손목의 위치와 방향으로 보아 오른손은 위로 들어 손바닥을 보이고, 왼손에는 약그릇이나 구슬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소 평면적인

느낌을 주지만 신체의 적절한 비례와 조형기법이 우수하여 불국사 금동비로자나  
불좌상(국보 제26호),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7호)과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3대 금동불상으로 불린다.

#### **참고 사이트**

국립경주박물관 <http://gyeongju.museum.go.kr>

#### **사진출처**

국립경주박물관 <http://gyeongju.museum.go.kr>

## 4. 경주 남산 삼릉 일대 불상

### ■ 경주 남산과 삼릉



남산은 경주시의 남쪽에 솟은 산으로 신라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금오봉(468m)과 고위봉(494m)의 두 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40여개의 계곡과 산줄기들로 이루어진 남산은 남북 8km, 동서 4km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내린 타원형이면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정상을 이룬 직삼각형 모습을 취하고 있다. 100여 곳의 절터, 80여 구의 석불, 60여 기의 석탑이 산재해 있는 남산은 노천박물관이다. 남산에는 40여개의 골짜기가 있으며, 신라 태종의 성지 서남산, 미륵굴·탐굴·부처굴 등의 수많은 돌속에 묻힌 부처가 있는 동남산으로 구분된다.

남산 서쪽 기슭에 있는 나정은 신라의 첫임금인 박혁거세의 탄생신화가 깃든 곳이며 양산재는 신라 건국 이전 서라벌에 있었던 6촌의 시조를 모신 사당이다. 포석정은 신라 천년의 막을 내린 비극이 서린 곳이다. 동남산에는 한국적 아름다움과 자비가 가득한 보리사 석불좌상, 9m 높이의 사면 바위에 탑과 불상 등을 새긴 불무사 부처바위, 바위에 아치형 감실을 파고 앉은 부처굴 감실석불좌상이 있다. 남산에는 미륵굴(보리사) 석불좌상, 용장사터 삼층석탑, 칠불암 마애석불을 비롯한 12개의 보물, 포석정터, 나정과 삼릉을 비롯한 12개의 사적, 삼릉굴 마애관음보살상, 입굴석불, 약수굴 마애입상을 비롯한 9개의 지방 유형문화재, 1개의 중요 민속자료가 있다.

유적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도 뛰어나다. 남산을 일등으로 꼽는 사람들은 "남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경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고 한다. 곧, 자연의 아름다움에다 신라의 오랜 역사, 신라인의 미의식과 종교의식이 예술로서 승화된 곳이 바로 남산인 것이다.

삼불사 입구에서 언양 쪽으로 약 450m 지나면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삼릉계곡이 시작된다. 아달라왕과 신덕왕, 경명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세 왕릉이 계곡 입구에 있어 삼릉계곡이라 불린다. 세 능은 평범한 원형의 봉분이다. 삼릉계곡을 냉골이라고도 하는데, 사시사철 시원한 계곡물이 끊이지 않으며 남산에서 가장 길고도 가장 많은 불상조각이 있는 계곡이다.

## 참고 자료

, 『답사여행의 길잡이 2 경주』, 돌베개, 1997.

## 사진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경주남산연구소 (아래 지도)

## ■ 경주 남산 삼릉 불상 답사 이동로





## 1)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慶州 拜洞 石造如來三尊立像)

정리: 박사과정 4학기 박연숙

종목	보물 제 63호
명칭	경주 선방골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분류	유물 / 불교조각/ 석조/ 불상
수량	3구
지정(등록)일	1963.01.21
소재지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65-1번지
시대	삼국시대
소유자	국유
관리자	경주시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慶州 拜洞 石造如來三尊立像)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신라는 민간에서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를 공인하기까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배 계층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그래서인지 현재 발견되고 있는 경주 지역의 불상들은 대부분 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중 경주 남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배리(拜里) 삼존석불은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규모나 양식 면에서 경주 지역의 대표적인 석불 중 하나로 손색이 없다. 흔히 삼체석불(三體石佛), 혹은 배리삼존불(拜里三尊佛)이라고도 지칭되는 이 불상들

은 원래 본존여래입상과 오른쪽 협시보살입상은 같은 장소에, 왼쪽 협시보살입상은 조금 떨어진 곳에 흩어져 있던 것을 1923년 현재와 같이 경주 남산 배리, 일명 선방골(禪房谷)에 수습·복원하여 놓은 것이다. “배리 삼존석불은 당시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만들어진 대형 석불로는 가장 시대가 빠른 상으로 이후 경주에서 크게 유행한 석불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sup>4)</sup>

우선 중앙의 본존불은 높이가 2.78미터이며 큼직한 돌을 편평하게 다듬어 앞면을

4) 발해





본존표정

부조형식으로 조각한 것이다. 오른손은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펴 위로 향해 치켜든 시무외인(施無畏印)을, 왼손은 팔을 아래로 내려뜨리고 손바닥을 정면을 향하도록 편 시여원인(施與願印)자세를 취하고 있다. 본존 여래상의 머리는 울룩불룩한 나발(螺髮)과 민머리인 소발(素髮)이 중복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어 마치 모자를 쓰고 있는 듯 한 모습이다. 사각형의 얼굴에 둥글고 살찐 양 볼, 불거져 올라온 눈, 꺾 다문 입가의 미소 등은 전형적인 신라불상의 얼굴을 나타낸다. 삼각형의 코끝은 깨어져 있고 양귀는 길게 어깨에 닿아있으나 그 형태는 분명치 않다. 짧은 목에는 삼도(三道)<sup>5)</sup>가 표현되지 않았으며, 우람한 상체에 비해 하체는 불분명한 다리의 윤곽 때문에 다소 빈약해 보인다. 양쪽 어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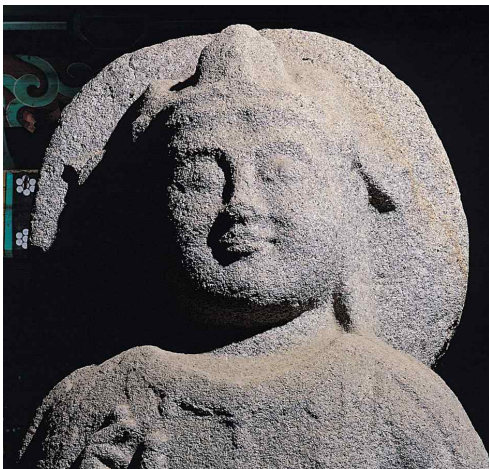
를 모두 감싼 통견 법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오른쪽 어깨를 한번 더 감싸고 있으며 가슴에서 발목까지 다섯 가닥의 U자형 옷주름으로 표현되어 그 옷자락은 다시 두 팔 위로 걸쳐 흘러내리고 있다. 광배는 정면으로 얼핏 보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면을 보면 주형광배(舟形光背)의 모습이 뚜렷하다. 그러나 이 광배는 우리가 얼굴주위에서 어깨 사이 두 다리 옆의 옷자락에 가린 면만을 정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광배로서의 기능보다는 불상을 지탱해주는 구실을 더 충실히 하고 있는 듯하다. 본존여래상의 신체 비례는 대략 사등신(四等身)으로 신체에 비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큰 어린아이의 신체 비례를 하고 있으나, 어깨가 딱 벌어지고 큰 기둥을 연상시키고 있어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힘을 느끼게 한다. 이는 “중국에서 6세기 후반에 유행한 북제(北齊)·북주(北周)의 불상 양식<sup>6)</sup>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sup>7)</sup>

왼쪽의 보살상은 발굴 당시 본존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반드시 누워있었던 것을 본존 왼쪽의 자연석을 대좌삼아 세

5) 이상을 실현하는 세 가지 과정인 견도(見道)·수도(修道)·무학도(無學道)를 말한다. 이는 세상의 법이 연기와 중도임을 관찰하고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실천하여 해탈이나 열반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초기 경전에서는 견도나 수도의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단지 부처가 사제(四諦)를 관찰하여 견도·수도·해탈의 단계를 거쳤다고 설명하였다.

6) 6세기 중엽 북위가 동(東)·서위(西魏)로 갈라지면서 점차 불상이 온화해지고 우아한 모습을 띠게 된다. 이러한 양식이 북제(北齊)시대에 정착되어 둥근 얼굴에 온화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며 몸은 풍만해져서 어깨, 가슴, 손 등이 둥근 맛을 띠며 몸에 밀착된다. 옷주름은 선각(線刻)으로 변한다. 이러한 양식 변화는 인도 굽타 양식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불상은 북제(北齊)·주(周) 이후에 인도 불상의 형식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7) 문화재청 자료, 2013, J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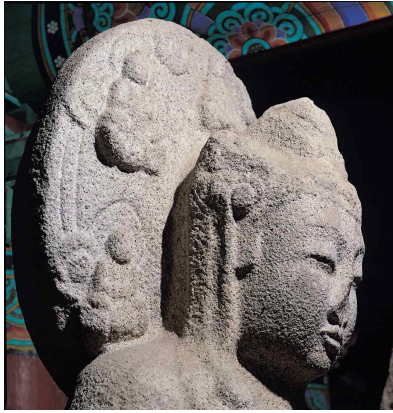


좌협시보살상 머리 및 광배(좌측면 향)

위놓은 것이다. 약 2.3m의 높이로, 삼존 가운데 가장 조각이 섬세하며, 머리에는 삼산모양의 보관을 쓰고 있으며, 그 밑 부분에는 두 가닥의 띠가 새겨져 있는데 각각 귀와 얼굴을 지나서 어깨로 흘러내리고 있다. 불상은 목에서 다리까지 드리운 구슬목걸이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있고, 얼굴 모습은 본존과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자애로운 미소를 한껏 머금고 있으며, 왼손은 어깨까지 쳐들고 불경을 쥐고 있다. 뺨을 한껏 팽창시킨 사각형의 얼굴은 꼭 다문 자그마한 입과 어우러져 환한 미소를 얼굴 가득 짓고 있다. 가늘

게 표현된 눈은 역시 미소를 띠고 있으며 눈썹에서 연장된 코는 그 끝이 길이에 비해 큼직하게 처리되어 있다. 얼굴에 비하여 작은 입은 정확히 얼굴너비의 3/1에 해당된다. 둥글게 처리한 어깨는 본존보다 좀 더 탄력적인데 이러한 점은 가슴이나 허리하체 등의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기법적으로 보다 세련되어 보인다. 또한 왼편으로 무게의 중심이 기울어져 몸체가 약간 틀어지도록 한 이른바 2곡(二曲)자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본존상에 비하여 허리도 잘록해진 편이며 두 다리의 굴곡도 다소 드러나 있다. 오른 손은 가슴에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여 다섯 손가락을 조금씩 구부리고 있으며, 왼손은 옆으로 내려 보병을 잡고 있는데 병은 불완전하게 처리되어 있다. 사각형태의 발은 본존과 마찬가지로 발등을 높이 표현했다. 목에는 삼도가 보이지 않고 목 밑으로는 넓은 목걸이를 두르고 있다. 천의는 양 어깨에서 U자형으로 흘러내려 허벅지 부근에서 주름을 만들고 있다. 두 팔에 감긴 옷주름은 몸 옆면으로 한가닥이 흘러내리고 다른 자락은 무릎부분에서 U자를 그리고 있다. 머리 뒤에는 보살상과 한돌로 조성된 머리광배가 있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이 두광은 현재 오른쪽 어깨 윗부분이 조금 깨어져 있다.

오른쪽의 보살상은 삼존 가운데 가장 수법이 떨어지는 편에 속한다. 높이는 2.3m이며, 오른손은 펴서 가슴에 얹고 왼손은 굽혀서 허리 부분에 대고 있다. 왼쪽의 보살상이 다소 가냘픈 느낌을 주는 반면, 오른쪽의 보살상은 전체적으로 몸을 뒤로 젖혀 다소 우람한 느낌을 주지만 표정은 더 앳되게 보인다. 본존 여래상과 마찬가지로 사등신의 신체 비례를 하고 있으나, 본존불과는 달리 무릎을 약간 구부려 경직된 직립 자세에서 탈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멸이 심하지 않아 세부기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 보살상 역시 선상이 아닌 오른쪽으로 무게의 중심을 둔 이곡 자세를 하고 있어 왼쪽 보살상과 대칭을 이룬다. 또한 이 상은 대좌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대좌가



우협시보살상 머리 및  
광배(            방향)

독립되어 조성된 다른 상과 달리 이 상은 무릎에서 이어진 한돌로 만들어져 파괴를 면한 듯하다. 따라서 이 상은 무릎에서 이어진 두 개의 돌로 구성된 특이한 보살상이라 하겠다.

왼쪽 협시보살상과는 대조적으로 온몸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는데, 머리엔 삼면에 꽃무늬가 들어 있는 보관을 쓰고 있으며, 반쯤 감은 눈과 입, 그리고 양 볼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전체적으로 얼굴의 윤곽선과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다소 커 보이는 코와 그 주위에 미소가 감도는 입 등이 잘 어우러져 친진한 미소를 가득 담은 아기 같은 인상을 준다. 목에는 삼도가 없으며 본존과 유사하게 약간 움츠린 듯하면서도 둥글게 표현된 어깨

로 인해 상체가 조금 짧아 보인다. 그 외의 신체의 굴곡은 나타나있지 않으며 두 발의 경우 나머지 상들에 비해 가지런히 모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도 사실적이다. 양쪽 어깨에 내려온 천의는 배에서 두겹으로 겹치고 있으며, 뒷면의 천의는 U자형의 옷주름을 선각으로 새기고 있다. 목에는 중앙에 큼직한 장식이 있는 세가닥의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길어 발목까지 이른다. 이 같이 굵고 호화로운 장식은 두꺼운 옷과 함께 육중한 느낌을 준다. 둥근 원판 모양의 대좌는 연꽃을 아래위로 겹친 연꽃대좌로 위의 것은 양련의 복판 연화문이다. 앞면의 연꽃은 뚜렷한 부조이지만 뒷면은 형식적으로 처리했다. 중국의 북제 불상을 그대로 모방한 듯, 굵은 영락 장식, 천의자락, 치마의 옷주름 등이 비록 투박하지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위의 논의한 삼존상의 특징과 조각사적 의의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이 삼존상은 불상의 경우 그 형식이 단순화된 반면 보살은 장식적이며, 나발(螺髮)의 표현과 육중한 의복, 굵은 띠와 같은 세부형식이 이 석불의 특징이라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석불의 아이와 같은 얼굴표정이나 체형, 목중하고 단순화된 선은 이 삼존상이 7세기의 1/4분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가능케 한다. 셋째 이 삼존상의 아미타불과 관음,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불상일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아미타삼존불이라면 당시 유행하던 섭론종 사상에 의해서 그 성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불상의 모본이 되는 중국불상은 북주(北周)에서 수(隋)나라에 걸쳐 유행된 새로운 양식계열의 불상이며 이는 600년 중국 수나라에서 11년 만에 귀국한 원광법사가 국내에 처음 소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 삼존상의 양식은 단순한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라화하여 불상을 보다 친밀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우리나라의 삼화령 미륵삼존불이나 서산마애불 등 당시 불상들의 양식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본 불상의 가장 독창적인 특성은 다름

어지지 않은 투박성으로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친근감 있게 표현되어 불교포교에 효과적인 불상양식이라 할 수 있다.<sup>8)</sup>

## 참고자료

문명대, 「경주남산불상의 현장」, 『경주남산불상실측조사연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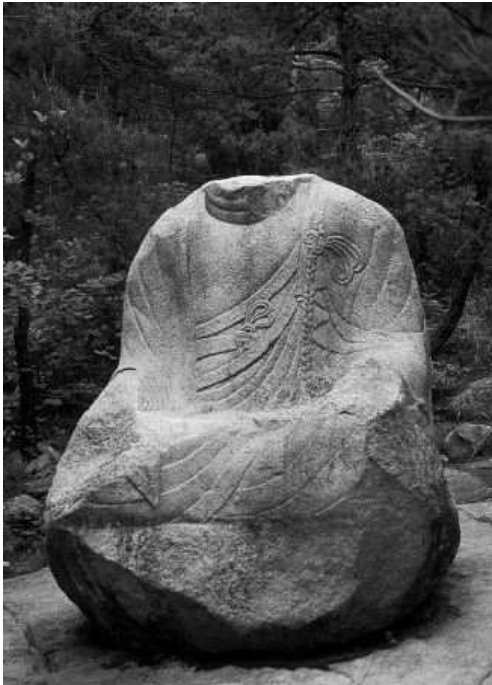
문화재청자료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

8) , 「경주남산불상의 현장」, 『경주남산불상실측조사연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89, pp. 50- 51.

## 2) 냉곡 석조여래좌상

정리: 편집부



삼릉 목 없는 냉곡 석불좌상

거칠게 치석된 것으로 추정되어 특이하다. 이 불상의 원 위치는 지금처럼 어느 곳 큰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자연과 어우러져 있던 모습이 아닐까 한다.

### ■ 누가 신라 불상의 목을 잘랐나?

천년신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신라시대 역사유물, 유적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경주 남산. 아직까지도 남산에는 많은 불상과 탑들이 남아있다. 대부분은 석탑과 석불로 특히 마애불이 많은데, 이는 하늘의 신과 땅의 신들이 바위 속에 머물면서 백성들을 지켜준다 믿었던 신라인들의 바람이 투영된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삼릉의 상선암, 소나무 숲길을 걷다보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바로 목이 없는 석불좌상이다.

이 불상은 1964년, 30미터 남쪽 땅 속에서 머리가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후

1965년, 분황사 절의 우물 속에서도 다수의 목 없는 불상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당시 학계에 큰 이슈가 되었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수의 훼손된 불상들이 발견된 것이다. 그렇다면 수 없이 많은 불상이 우물 속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당시 절의 우물 속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불상이, 훼손된 채 방치된 것일까? 누군가 고의로 불상의 목을 자른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늘어 약한 목 부분이 긴 세월을 버텨내기 힘들었던 것인지 정확한 사연은 알수 없지만, 목 뒷목부분을 정으로 내려친 파괴한 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고의적인 훼손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남산의 불상들은 어떤 이유로, 무엇에 의해 훼손됐을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땀 흘리는 불상’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불교를 배척한 유생들이 세상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간주해 불상을 파괴하고, 목을 불태워 우물이나 저수지,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니며, 자연재해인지, 전쟁을 인한 것인지, 아니면 조선시대의 송유역불제도에 의해서 인지, 그 추측만 무성할 뿐,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하지만 긴 세월동안 따로 떨어져 있었던 불상은 이제 하나씩 잃어버린 제 얼굴을 찾아가고 있다. 문화재 복원팀이 고증을 통한 조심스러운 작업과정을 거쳐, 불상의 얼굴 찾아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인들은 이상국가를 염원하며 수 많은 불상을 만들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은 불상이 목이 잘린 채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불상들이 목이 잘린 그 이유는, 아마도 신라 천년의 세월을 말없이 겪어온 이 불상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 자료 출처

경주남산연구소

문화재청 헤리티지채널 방송 자료 중 발췌

## 사진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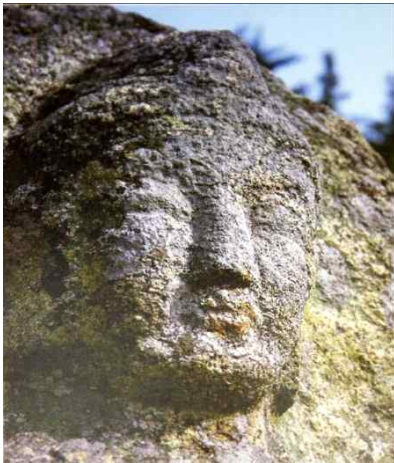


### 3)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정리: 박사과정 3학기 정은진

종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
명칭	삼릉계곡마애관음보살상
분류	유물 / 불교조각/ 석조/ 불상
지정(등록)일	1972년 12월 19일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시대	통일신라시대
관리자	경주시

마애관음보살상은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으로, 높이는 1.5m이며 경주 남산 서쪽 사면의 삼릉계곡에 있는 큰 바위의 윗부분을 쪼아내어 부조한 것으로 연꽃무늬 대좌(臺座)위에 서 있는 관음보살상이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인 이 불상은 정확한 연대와 조각자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통일신라시대인 8~9세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불상의 동편에는 머리 없는 불상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의 소나무 숲속에서 출토되어 이쪽으로 옮겨온 것이다.



마애관음보살상 [도판 1]

불상 뒷면에는 기둥 모양의 바위가 광배(光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연미에 인공미를 가한 느낌이다. 오른손은 들어 가슴에 대고, 왼손은 내려 정병(淨瓶)을 든 모습이다. 입이 작고 입 끝을 살짝 오므려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은 비교적 길고 통통하여 자비스러운 모습이며[도판 1], 정병과 보관(寶冠)을 통해 이 불상이 현세에서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한다는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 얼굴과 몸의 윗부분은 비교적 고부조로 입체감이 있게 표현되었으나, 허리 아래 부분은 윤곽이 불분명하고 표면이 거칠며, 왼쪽 다리 옆의 정병만 고부조로 표현되어 확실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천의(天衣)는 왼쪽 어깨에서 가슴을 비스듬히 지나면서 넓게 도드라져 있다.

하체에는 군의(裙衣)를 묶은 띠가 허리에서 무릎 바로 위까지 늘어져 있고, 양 다리에 각각 U자형 주름이 새겨져 있는데 선각(線刻)에 가깝게 표현되어 있다. 천의가 입혀진 형식이나 손바닥을 앞으로 내보이면서 정병을 들고 있는 손 모습은 통일신라 8세기 관음보살상의 전형적인 표현인 경주의 굴불사지사면석불(掘佛寺址四面石佛)[도판 2] 중 서



[도판2]



[도판3]

쪽면의 왼쪽 관음보살상이나, 칠불암마애삼존불(七佛庵磨崖三尊佛)[도판 2] 중의 정병을 든 보살상 등과 유사하며, 불상의 비례와 착의법(着衣法), 그리고 지물(持物) 등에서 8세기 후반경의 제작으로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문화재청 <http://www.cha.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 사진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4) 삼릉계곡 마애선각육존불상

정리: 석사과정 2학기 최은진

종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호
명칭	삼릉계곡선각육존불
분류	유물 / 불교조각/ 석조/ 불상
지정(등록)일	1972년 12월 19일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시대	통일신라시대(7세기 말 8세기 초)
관리자	경주시

경주 남산 삼릉 계곡 입구에 있는 불상군이다. 만들어진 시대나 조각자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통일신라시대(7세기 말 8세기 초)로 추정된다. 선각(線刻)으로 불입상이 본존인 삼존상과 불좌상이 본존인 삼존상이 각각 다른 바위 면에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명칭은 따로 불러야 옳을 것이다.



삼릉골 마애선각육존불상(전경)

좌측의 조금 돌출된 바위 면에 새겨진 불입상의 삼존불은 좌우의 두 보살이 무릎을 꿇고 꽃 쟁반을 받쳐 들어 꽃 공양을 하는 모습을 대담한 곡선의 선각으로 표현하였다. 삼존 모두 둥근 두광(頭光)<sup>9)</sup>이 있으며, 본존 불입상은 얼굴이 둥글고 신체도 풍만한 곡선으로 처리되었다. 상들이 머리와 몸체에 알맞은 비례감을

보여 준다. 편단 우견(偏袒右肩)<sup>10)</sup>의 착의법에 왼쪽 어깨를 넘어가는 대의(大衣)<sup>11)</sup>의 옷단이 삼각형으로 접혀 있다. 허리 밑에서 발 윗부분까지 U자형의 곡선을 그리며 늘어져 있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 들어 올렸고 왼손은 배 앞으로 들어 양손을 마주하고 있다.



그림 26 삼릉골 마애선각육존불상(좌벽)

보살상은 가슴 앞에 세 개의 구슬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다. 어깨를 감싸고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천의(天衣)<sup>12)</sup> 자락이 몸 옆으로 큰 곡선을 그리며 유연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하체는 연결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으나 밀착된 군의(裙衣)<sup>13)</sup>를 통하여 드러나는 신체를 표현한 듯, 다리의 윤곽이 간간히 새겨져 있다. 삼존상 모두 특징적인 부분을 포착하여 간략하면서도 균형 잡힌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오른쪽 뒤의 큰 바위 면에 선각된 불좌상 본존의 삼존상도 착의 법이나 표현 기법이 거의 같으나 묘사력에서는 뒤떨어지는 편이다. 본존좌상보다

9) 보살의 정수리에서 나오는 빛이다.

10) 어깨에 옷을 걸치고 오른쪽 어깨가 드러내는 것이다. 편단(偏袒)이란 말 자체가 한쪽 팔을 드러낸다는 뜻이며, 이 형식에는 비구가 존자(尊者)를 공경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11) 삼의(三衣, 세 가지 가사(袈裟))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가리키며, 설법을 하거나 마을에 나가 걸식할 때에 입는 가사로 승가리(僧伽梨)라고도 한다.

12) 보살이나 천인(天人)이 입는 얇은 옷으로 무봉의(無縫衣)라고 한다.

13) 허리에서 무릎 아래를 덮는 긴 치마 모양의 옷으로 불·보살이 입는 하의를 말한다. 인도 남성의 하의에서 유래되었는데, 허리띠를 사용하지 않고 양끝을 여며 넣어 착용한다.

입상의 보살상들이 조금 작게 구성되었고, 삼존 모두 둥근 두광을 새겼으며 본존 상에만 신광(身光)<sup>14)</sup>을 표시했다. 좌협시는 바위 면의 균열로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다. 본존상은 우견 편단의 법의(法衣)<sup>15)</sup>에 오른손을 앞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바닥을 위로 하여 배 앞에 들고 있다. 상체에 비해 무릎 폭이 좁고 하체의 표현은 치졸한 편이다. 보살상은 오른손을 가슴 앞에, 왼손은 손끝을 밑으로 하여 배 앞에 대고 있다. 오른쪽 바위의 정상에는 당시 이들 불상을 보존하기 위한 법당을 세웠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림 27 삼릉골 마애선각육존불상(우벽)

## 참고 자료

네이버 국어사전

두산 백과사전

, 『답사여행의 길잡이 2 경주』, 돌베개, 199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사진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14) 보살의 몸에서 발하는 빛

15) 삼의(三衣), 곧 가사(袈裟)를 말한다. 승복(僧服)·승의(僧衣)·법복(法服)이라고도 하며 비구·비구니가 입는 옷이다.



## 5) 삼릉계곡 마애선각여래좌상

정리: 석박사통합과정 7학기 김시정

종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9호
명칭	삼릉계곡선각여래좌상
분류	유물 / 불교조각/ 석조/ 불상
지정(등록)일	1982년 2월 24일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시대	통일신라시대(9세기 말 10세기 초)
관리자	경주시

보물 제666호인 석조여래좌상을 지나 상선암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서쪽 암반



그림 28 삼릉계 6사지 마애선각여래좌상

을 바라보면 두 개의 절벽바위가 10m높이로 솟아 있는데 이곳에 선각의 마애불이 새겨져 있다. 자세히 보면 머리와 어깨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으나, 그 이하는 미완성이다. 소발의 머리에 육계가 솟아 있고, 둥근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귀는 길게 내려와 거의 어깨에 닿아있으며 짧은 목에는 삼도가 분명하다. 넓고 각이 진 어깨선이 표현되어 있어 상반신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으나 그 이하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입상인지 좌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불상의 현재 높이 약 80cm·어깨 너비 약 130cm이다.

이 불상의 전체적인 형태는 선각 육존불의 오른쪽 본존과 닮아 있으며 제작기법 또한 음각의 선묘로 동일하다. 하지만 좁은 이마와 백호, 그리고 두 눈썹과 눈 사이를 매우 좁게 표현한 점 등의 세부표현은 삼릉계 제5사지 마애여래좌상과 유사점이 확인된다.

삼릉계 5사지 마애여래좌상을 살펴보면, 이 불상은 지방유형문화재 제159호로



삼릉계 5사지 마애여래좌상

얼굴이 더 투박하게 묘사되어 있고, 일정한 너비로 반복되는 선각 옷주름 등에서 6사지 불상이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약 10m의 바위 면에 서쪽을 향해 앉아 있다. 신체는 선각하였고, 얼굴과 손 등 중요한 부분은 약간 도드라지게 새겨 표현한 점이 매우 독특하다.

5사지 마애여래좌상의 얼굴은 가늘고 약간 치켜 올라간 눈, 긴 코, 두툼고 큰 입술로 투박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목에는 삼도가 가늘게 새겨져 있다. 조각 수법적인 측면에서 6사지 선각마애불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목구비의 표현 형식이 유사하다. 이러한 세부표현으로 보아 두 불상은 10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두 불상을 비교했을 때, 5사지 마애여래좌상의

## 사진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6) 삼릉계곡 석불좌상 (慶州三陵溪谷石佛坐像)

정리: 석사과정 3학기 구성은

종목	보물 제 666호
명칭	경주삼릉계곡 석불좌상 (慶州三陵溪谷石佛坐像)
분류	유물 / 불교조각/ 석조/ 불상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산71(삼릉골)
시대	통일신라시대



삼릉계곡 석불좌상

이 불상은 삼릉계곡의 왼쪽 능선 위에 있는데 연화대좌 위에 결가 부좌한 좌상으로 머리부분이 떨어져 있던 것을 시멘트로 보수하여 붙여 놓았다. 광배는 불상 바로 뒤에 4조각으로 조각나 놓여 있다. 불상의 높이는 135cm 정도로 백색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부분은 별석으로 조성하여 맞추게 되어 있으나, 턱과 입 등 코 이하 부분이 떨어져나가 시멘트로 보수하여 붙여 놓았다.

얼굴은 위엄이 있으면서 단정한 모습이며, 머리는 라발(螺髮)을 자세하게 조각하였다. 법의는 우견편단인데 옷주름선이 유려하다. 손모양은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에 대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무릎위에 놓은 항마촉

지인(降魔燭地印)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슴이 발달하여 당당하며 자세가 안정감이 있어 부처의 위엄이 잘 나타나 있다.

대좌는 상·중·하대로 이루어진 8각 연 화대좌로 상대에는 16엽의 연판이 3중으로 둘러져있고 중대에는 각면에 안상(眼象)이 새겨져 있다. 광배는 윗부분이 결실되었으며,



삼릉계곡 석불좌상 후면

나머지 부분은 4조각으로 잘라졌는데, 내부를 두광, 신광으로 구획 하고 보상화문, 합나문, 엽문, 화염문 등을 새겨 넣었다. 비록 쪼개져 있어 그 원형을 알 수 없으나 조각수법이라든가 장식이 유려하여 8세기의 우수한 석불상으로 보인다.

#### 참고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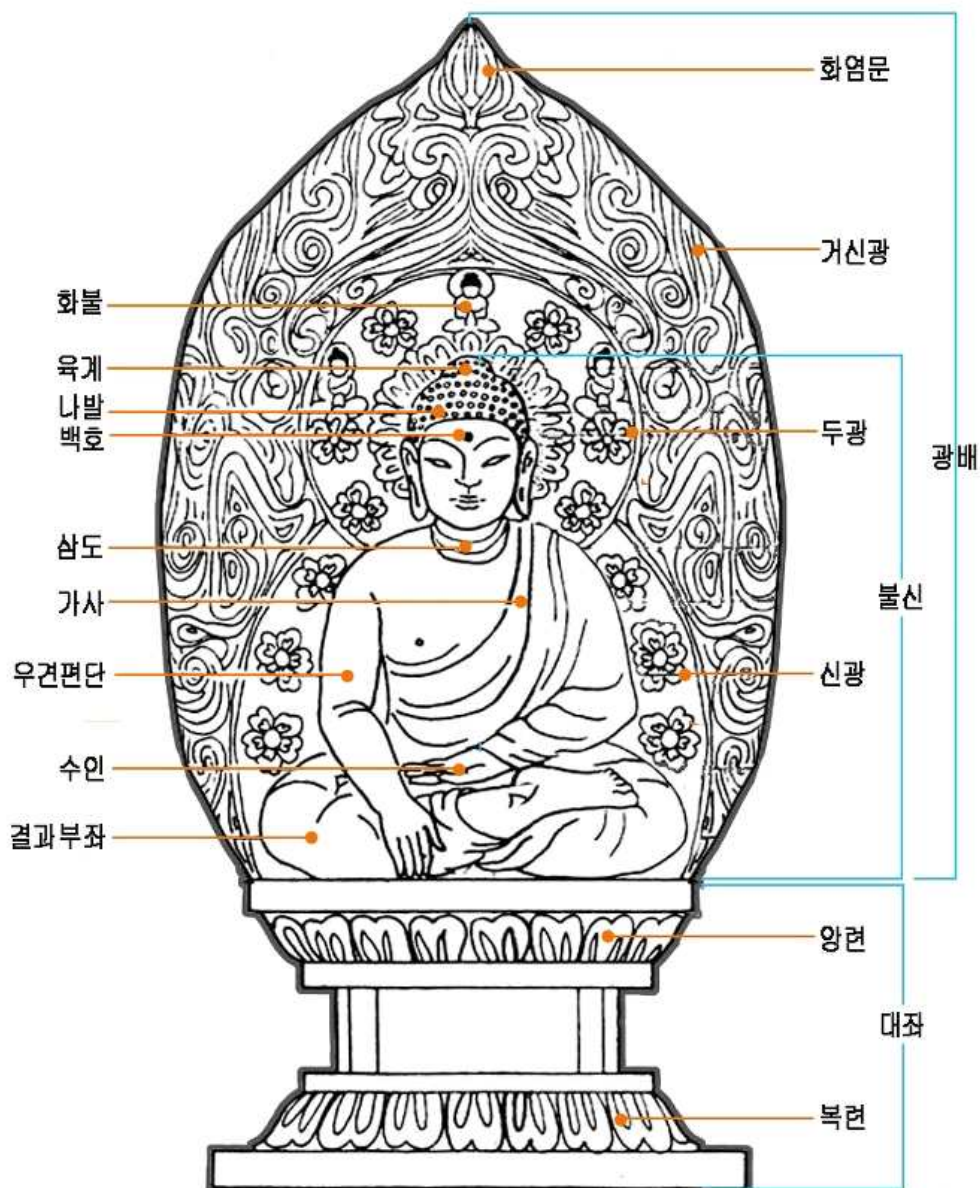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h.go.kr/>

#### 사진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5. 부록

### 1) 불상의 명칭





## 2) 수인과 불상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불

[수인의 종류]



### 3) 가사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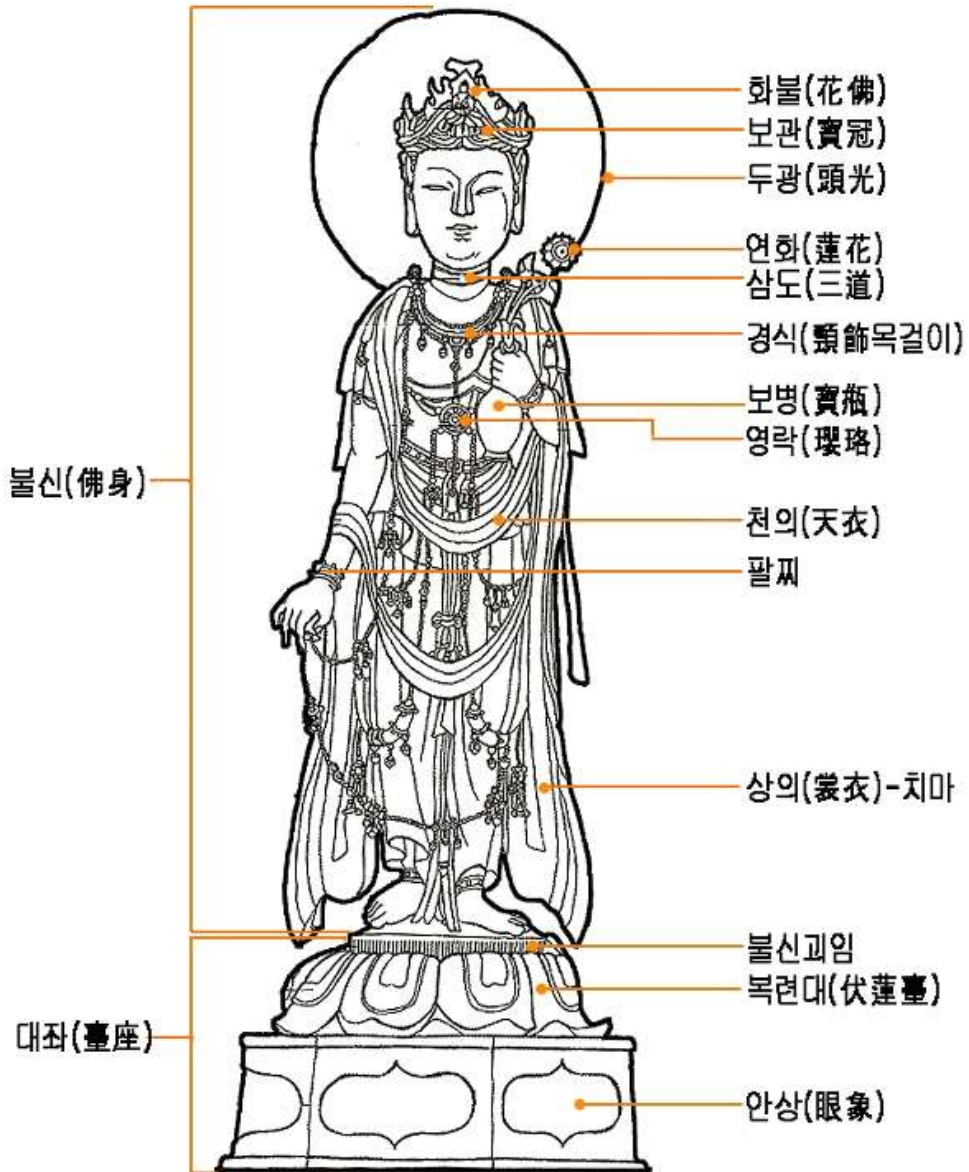
우견편단



통 견

	통견(通肩)	우견편단(右肩偏袒)	편삼(偏衫)
앞면			
뒷면			

#### 4) 보살의 명칭



**발 행:**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자료정리:** 김시정, 정은진, 박연숙, 박선희, 구  
성은, 이지영, 남수진, 최은진  
**편 집:** 하정민, 정은진, 남수진  
**발 행 일:** 2014년 6월 20일  
**발행부수:** 15부

**구태희 기사님 연락처 / 011-525-0759**

##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

**Aesthetics and Art History, Yeungnam University, KOREA**

**주소: (우)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전화: 053-810-3342**

**사이트: <http://home.freechal.com/misulsa>**